

큰스님 수행한담

“자리에서 만남시다”



70년대 후반 도봉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 후 기념 촬영. 앞줄 오른쪽부터 벽암스님, 전 태고종 사정원장 오시권 스님, 전 태고종 총무원장 이남채스님, 최근 입적한 태고종 증정 보살스님.

와 허방을 맞았습니다. 스물 여섯의 어린 나이로 청와대 뒷편 자하문 고개에 아담한 절 하나를 지었습니다. 자명사라 이름한 절이었는데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아 절을 통째로 헐어내야 했습니다. 68년도에 일어난 김신조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자명사 앞 뒷길은 은동 공비들과 경찰이 절전을 벌이는 전투장이 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와 열리고 그 와중에 절 땅이 정부에 수용되어 떠나야 했던 겁니다.

새 바람이 선들선들해지고 있습니다. 한가위 등근달이 벽공에 떠오르는 중추가 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조용히 '효'의 도리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가정에서 불효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효도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란 말은 한치도 어김이 없는 말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어른의 뜻을 그르치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일을 어른 모시듯 하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한치의 실수가 없으며 모든 일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니 이른바 출세라는 것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효도야말로 바른 삶의 이정표 나 내세우지 않고 하심하며 주변 사람의 마음 헤아려 계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절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은 나의 다른 이름인데 조상을 부정하게 생각해 절하기를 꺼린다면 그것은 곧 나를 꺼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상과 후손은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나의 다른 이름일뿐 결코 풀이 아닌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회주의 소가 벗 짚을 실컷 먹으면 악주의 말이 배가 터지도록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주말의 소와 악주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한쪽에서 먹었는데 다른쪽에서 배가 부르겠습니까. 윤회하는 종생은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양이 영원토록 고양이일 수 없고 지금의 소가 영원토록 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가 지금 먹은 벗짚이 어느 생애서인가 말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도리입니까. 오늘의 내가 어제의 너였음을 알면 어찌 시비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생의 부모를 남대하듯 하는 것

르쳐야 합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효심이 지극한 사람은 충성심도 지극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마구 자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효라는 말보다 효효이란 말을 즐겨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효심으로 사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회는 온갖 범죄가 들끓게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 도리의 근본을 못배운 사람이 어떻게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 많은 법이 있지만 그건 인간을 잃어내는 것이니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이끌어 주는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 갖는 한계입니다. 바른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는 법이 진짜 법입니다. 효도야말로 바른 삶의 이정표여서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넓은 아량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밝은 법은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법도 아니고 하라는 법도 아닙니다. 그저 가장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가장 맑고 순수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넘어서 일깨워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는 곳이 바로 부처님 법이어서 벽공의 둥근달 같이 어떠한 자리를 지키고만 있습니다. 인연있고 깨우침이 있는 자는 그 환한 빛에 의지해 제 갈길을 잘 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들쭉날쭉하고 헤치고 비틀거리며 축생과 아수라의 세상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 부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야 합니다. 또 깊은 산 시냇물 같이 맑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도 효심도 다 이 마음 한 자락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마음을 맑히며 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맑은 마음 한량 없어 해가 떠도 그늘지지 않고 해가 저도 어둡지 않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남시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너였음을 알면 어찌 시비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울에서도 먼 절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속의 절이 되었습니다. 나날이 넓어지는 서울땅은 나날이 분주해지는 세상살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집이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나며 서울땅도 넓어 졌지만 늘어나지도 넓어지지도 않은 것은 인간의 양심이 아님이 때문입니다. 늘어나거나 넓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쪼그라지고 삭막해져 오그라드는 것이 양심이란 두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의 붕괴는 넓어지는 서울땅 만큼이나 인간 정신을 공허하게 합니다. 나는 도덕이 붕괴되면 인간도 붕괴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인간 도덕성의 가장 근본은 효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침, 수해로 얼룩진 여름도 가고 어느

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심을 할 줄 아는 것이며 그 하심의 자리에서 주위를 잘 정돈하여 실수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니, 효도는 삶의 근본을 이루는 정신인 겁니다. 또 집안에서 어른의 심기를 잘 살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아량으로 모든 일에 먼저 합니다. 역시 무슨 일이든 실수가 없어 분명하고 밝아 소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건강해 집니다. 효는 그저 뒷사람 잘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정신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계을 지키는 마음이요 선정의 길이를 더해가는 것이며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조상에게

은 윤회 인연의 실타래를 마디마디 끊어 놓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어제의 나 혹은 내일의 나를 잘 보살피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도봉산 계곡에 가 보십시오. 나이들어 외롭고 서글픈 노인들이 많습니다. 계곡 바위틈에 앉아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다 가는 노인들의 뒷모습에 걸리는 저녁노을. 참으로 허망한 것이 인생이어서 하루하루가 자못 길어지는 때를 누구나 다 맛있게 되는 것임을 망각하고 젊음만이 최고이고 영원히리라 생각하고 제 갈길만 갑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외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편한 법입니다. 노인이 늘 즐겁고 편안한 사회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충효(忠孝)를 가르치기 이전에 효종을 가

나의 수행일기



이 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나는 철저히 인연법을 믿는다. 내가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경주문화엑스포 홍보담당 이사로 활동하게 된 것도 모두 전생에서부터 불교와 지중한 인연을 맺어왔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경주관광개발공사는 문화유적지로 직접 안내하는 2차 관광코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는 경주 감포 개발사업과 감은사 복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인이라면 이번 경주문화엑스포를 꼭 둘러봐야 한다. 신라 1천년의 문화를 음미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천년의 문화를 체험하는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48개국의 문화도 접할 수 있어 우리 문화와 비교해볼 기회도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질적인 문명, 종교, 물질문명의 갈등과 대립, 분열

경주엑스포 불교문화 알리는 공간 불자들 꼭 들러 '새천년' 비전 보길

다할 생각이다. 경주문화엑스포는 신라천년 불교의 중심지였던 경주지역의 문화와 유적, 즉 불교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다. 따라서 내외관광객이 찾아와 불교문화를 널리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불교문화유



과 전쟁으로 점철돼 왔다. 앞으로 이 세계는 치열한 문화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한다. 그 문화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불교가 없는 우리 문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우산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불교문화엑스포라 할만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불자인 나로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이번행사의 성공여부는 불교계의 관심과 홍보에 있다고 본다. 불교계 홍보를 위해 이미 주요 종단과 전국의 사찰에 경주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 안내장을 직접 보내는 등 교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에도 비중을 두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심어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남태평양 등지로 직접 나가 홍보를 하고 돌아왔다. 이번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지금까지는 좋은 편으로 나타

리 새 천년의 문화는 불교적 문화토대 위에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번 경주문화엑스포의 주제 '새 천년의 미소'와 부제인 '전승, 융화, 창조'는 세계의 문화와 조화를 이뤄 새 인류에 맞는 새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다짐과 각오를 담은 것이다. 21세기의 희망은 불교이고 불교를 말한다. 그러나 불교가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스님과 불자들이 개개인이 자신속에 잠재해 있는 진실한 생명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등불삼고, 진리를 등불삼아 더욱 수행 정진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사람의 불자로서 그 수행정진을 우리 불교문화역사를 일깨워주는 문화관광사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로 회향하기 위해 일심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정리-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부산지사, 광주지사, 대구지사, 목포지사, 속초지사, 북한지사, 청주지사, 강릉지사, 인천지사, 춘천지사, 대전지사, 안산지사, 전주지사, 마산청와대, 공주지사, 고성지사, 예산지사, 포항지사, 고양지사, 영주지사) and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Qi Gong' (氣功) therapy. Title: '氣가 통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Includes text about qi gong benefits, a diagram of the human body with qi flow, and contact information for '氣功研究會'.

Advertisement for 'MBC 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MBC 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Title: '명예퇴직창업'. Includes a list of course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세계건강활법협회'.

Advertisement for '황토 토굴' (Hwangdo Tugol). Title: '황토 토굴'. Includes text about the benefits of yellow earth, a diagram of a 'Hwangdo Tugol' structur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황토 토굴 사업본부'.